

國民 7割 以上이 原電의 重要性을 認識

日本 國民의 7할 이상인 「앞으로 原子力은 重要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日本에너지·情報工學研究會議가 지난 1월 19일 「에너지·原子力에 관한 여론조사와 國際比較」에서 그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동 조사는 일본 전국의 성인남녀 3,200명(응답률 78.8%) 및 原電周邊地域의 800명(응답률 75%)을 대상으로 設問조사를 한 것이다.

이 조사결과에 의하면 「어떤 형태로든 에너지문제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전국에서 90%, 「地球환경문제에 대해서 어떤 견해로든 관심이 있는 사람」은 95%에 달하고 있다. 또 「앞으로 10년 동안 일본의 에너지수요가 증가할 것인가, 아닌가」에 대해서도 전국에서 90%의 사람이 「증가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需要가 감소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단지 6%에 지나지 않았다.

이외에 「原子力發電은 앞으로 일본 전력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어느 정도로 중요한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대답한 사람과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대답한 사람은 전국에서 73%, 원전지역에서는 80%에 달하고 있어 대부분의 사람이 원자력을 중시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한편으로 「원자력발전소에서 대형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67%에 달하고 있어 정확한 정보제공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에너지에 대한 關心이 높다

에너지문제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 관심을

갖는 사람은 전국 90%, 원전 주변지역 주민 92%로 거의 같은 정도이지만 「대단히 관심이 있다」고 한 사람의 비율은 전국 34%에 비하여 원전주변지역에서는 42%로 원전주변지역 주민이 관심이 더 높다.

지구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관심이 있는 사람은 전국 95%, 원전주변지역 96%로 거의 같은 정도이다.

또 지구환경문제에 협력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한 비율이 전국에서 80%, 원전주변지역에서 77%,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한 비율을 더하면 전국이나 원전주변지역이나 99%의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든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에너지 자급률(1986년 19.9%)에 대해서는 정확한 대답 「10~20% 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전국 29.3%, 원전주변지역 26.1%로 각각 3할 이내의 사람이 에너지 자급률에 대해서 정확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 「10~20%미만」을 중심으로 하여 「10% 미만」에서 「20~30% 미만」까지를 포함한 정답에 가까운 응답을 한 사람의 비율은 전국 73.5%, 원전주변지역 65%로 전국의 사람이 원전주변지역의 사람보다 더 정확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하여 앞으로 10년간 일본의 에너지수요가 증가할 것인가에 대해서 전국에서는 90%, 원전주변지역에서도 86%의 사람이 「에너지 수요는 증가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반대로 「수요는 감소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전국 6%, 원전주변지역 8%로 적었다.

앞으로 10년간의 에너지 수요전망은 전국,

원전주변지역 모두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에너지 수요는 증가한다」는 점에서 일치하고 있다.

이외에 생활과 에너지에 대해서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에너지소비의 증가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전국 48%, 원전주변지역 50%로 거의 반수를 점하고 있다.

한편 「생활의 질을 떨어뜨려도 에너지소비를 적게 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은 전국 27%, 원전주변지역 25%로, 또 「현재의 수준으로 좋다」고 한 사람도 각각 22%로 나타났다.

일본의 에너지수요의 증가 전망에 대해서는 전국, 원전주변지역 모두 9할에 가까운 사람이 「증가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자기 생활에서의 에너지소비에서는 「에너지소비가 증가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약 반수 정도 되고 있어서, 巨視 에너지수요의 증가전망에 비해서 微視 에너지소비 의향은 거의 반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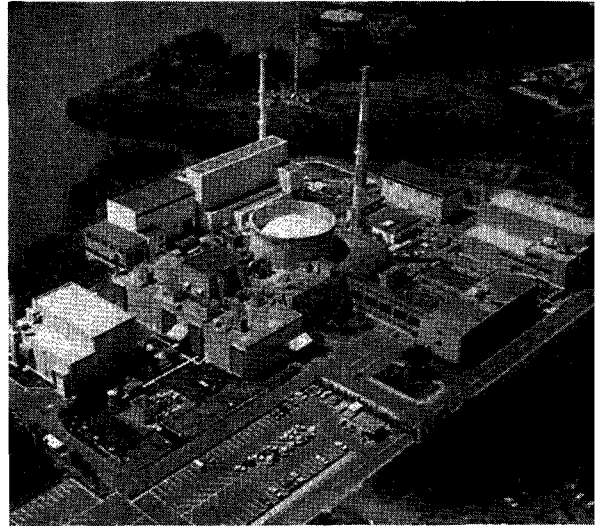
原電 周邊地域에서 支持 높다

또 장래의 有用에너지로는 전국에서는 「太陽光」이 59.1%로 1위, 「원자력」이 44%로 2위로 되어 있지만, 원전주변지역에서는 「원자력」이 51.0%, 「太陽光」이 47.3%로 순위가 바뀌었다.

에너지믹스의 일부로서 「원자력의 필요성이 증가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이 전국에서 60%, 원전주변지역에서 67%로 원전주변지역에서 「원자력의 필요성」을 전망하는 사람이 약간 많았다. 반대로 「필요성이 증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전국 21%, 원전주변지역 20%로 거의 같은 정도이다.

현재 어떤 형태의 발전이 전력의 주력이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전국에서는 59.4%로 6할에 가까운 사람이 「석유화력」이라고 답하고 있지만, 원전주변지역에서는 「석유화력」이라고 답한 사람은 44.3%로 반수 이하가 되었다.

한편 「원자력」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의



비율은 전국에서 20.8%에 대해서 원전주변지역에서는 32.8%로 많았다. 한편 같은 설문에 대해서 「수력발전」이라고 답한 사람의 비율은 전국 12.6%, 원전주변지역 18.9%로 원전주변지역 쪽이 많았다.

앞으로 10년간의 주요에너지원에 대해서는 전국에서 51%, 원전주변지역에서는 62.3%의 사람이 「원자력발전」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전국에 비해 원전주변지역에서 「원자력발전」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많았다.

또 현재 주력전원인 「석유화력」이 10년후에도 계속 주요전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전국에서 15.7%로 적었다.

한편 장래의 유용에너지로 많은 응답을 얻은 「태양광발전」은 전국에서 15.9%, 원전주변지역에서 11.7%로 주요전원으로서의 전망을 가진 사람은 적었다.

원자력발전은 앞으로 일본의 전력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해서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전국에서 29%, 원전주변지역에서는 35%이지만,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전국에서 44%, 원전주변지역에서 45%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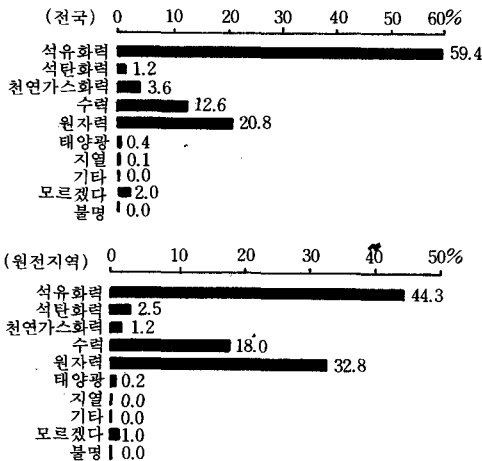
「대단히 중요하다」와 「어느 정도 중요하다」를 합한 原子力重視派의 비율은 전국에서 73%, 원전주변지역에서는 80%로 되어 국민 대부분이 원자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전국에 비해서 원전주변지역에서의 원자력 중시 비율이 더 높다.

한편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전국 14%, 원전주변지역 12%,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전국 7%, 원전주변지역 5%로 나타나 이 두가지 의견을 합한 非重視派의 비율은 전국 21%, 원전주변지역 17%로 적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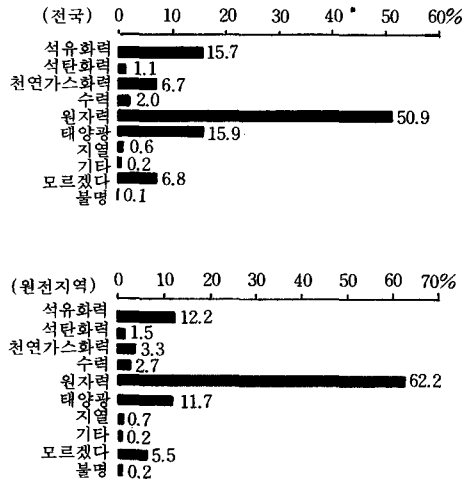
原子力情報는 TV와 新聞에서

에너지와 원자력에 관한 정보는 전국과 원전주변지역 모두 「TV」와 「신문」에서 얻는 경우가 8할 이상이였으며, 특히 전국에서는 93.7%로 9할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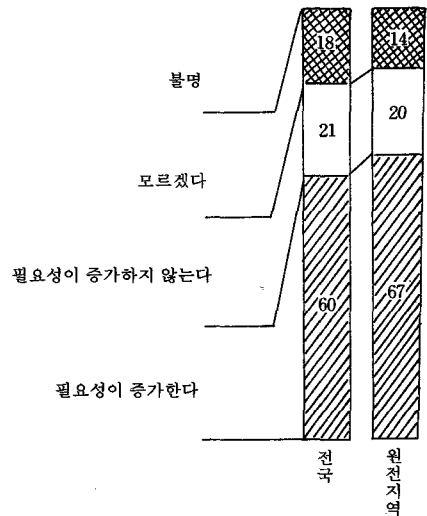
○현재의 주요 전원은 무엇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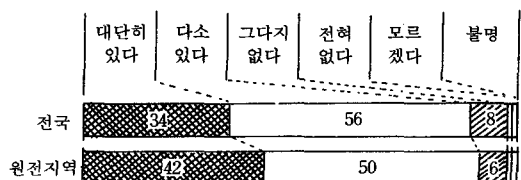
○앞으로 10년동안 주요전원은 무엇이 될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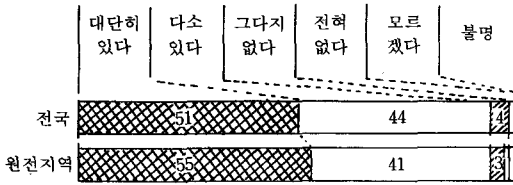
○에너지믹스에서 원자력의 필요성은 증가할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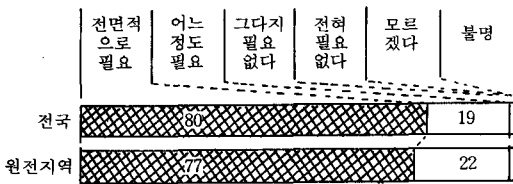
○에너지문제에 관심이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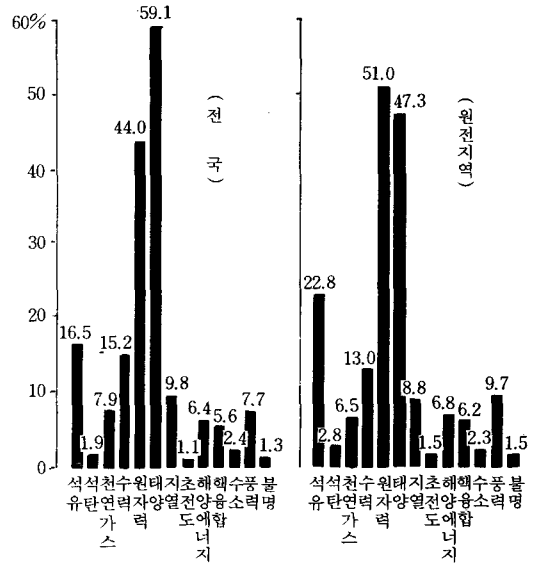
○지구환경문제에 관심이 있는가?



○지구환경문제에 대해 협력이 필요한가?



○장래 有用한 에너지는 무엇이 될 것인가?



原電建設의 必要性을 認定

일본원자력산업회의와 원자력안전연구협회, 亞太과학기술협회 공동주최로 작년 10월 16일과 17일 이틀동안 東京에서 개최된 「제4회 日臺원자력안전세미나」에서 대만전력공사의 姚大全씨가 최근의 대만에서의 여론조사결과를 소개하였다. 다음은 그 발표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1. 臺灣電力季報 제3호가 1987년 2월에 전기요금 지불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는 두가지 중요한 결과를 나타냈다(유효응답 36,367건).

(1) 전원개발의 우선도가 높은 것은?

- 원자력:45.4%
- 수력:3.7%

○화력:10.8%

○기타:6.8%

(2) 전원개발에서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요인은?

- 안전성:70.0%
- 환경:13.5%
- 경제성:12.4%
- 연료원:3.8%

2. 臺灣電力季報 제12호가 1989년 5월에 전기요금 지불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는 두가지 중요한 결과를 나타냈다(유효응답 32,148건).

(1) 전원개발의 우선도가 높은 것은?

- 원자력:57.5%